

문화재청 공고 제2018-14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5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4. 25.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현재 지정현황
1	이제 개국공신교서 (李濟 開國功臣教書)	1축	이 * (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1294호 (1999.6.19.)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현재 지정현황
1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9점	국 유 (국립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비지정
2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李淑琦 佐理功臣教書)	1축	연안이씨 정양공파 대중회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2호 (2012.10.4)
3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粉靑沙器 象嵌 '景泰5年銘 李先齊 墓誌)	1점	국 유 (국립광주박물관)	비지정
4	지장시왕도 (地藏十王圖)	1축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비지정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

- 지정명칭 :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
- 소유자(관리자) : 이*(국립진주박물관)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 진주성
- 수량 : 1축
- 규격 : 전체 36.9×112.0cm, 화본 32.5×94.5cm
- 형식 : 권자본(卷子本)
- 조성연대 : 1392년(태조 1)
- 사유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이제는 태조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셋째 딸인 경순궁주(慶順宮主)와 혼인한 뒤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하는데 큰 역할을 해 개국공신 1등에 기록된 인물이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녹권과 원종공신녹권으로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 등 8점이 국보·보물로 지정되어 전하고 있으나 개국공신교서로 알려진 사례는 이번 국보 지정 예고 대상인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1999. 6. 19 지정)가 유일하다.

교서에는 이제가 다른 신하들과 대의(大意)를 세워 조선 창업이라는 큰 공을 세우게 된 과정과 가문과 친인척에 내린 포상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끝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서 조선 개국 초까지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자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제도사·법제사 연구의 중요 자료이다. 또한 서예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말~조선 초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보물 지정 예고】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 지정명칭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 수량 : 총9점(사리외호 1점, 사리내호 1점, 사리봉영기 1점, 청동합 6점)
- 규격 : 금동사리외호 높이13cm×너비7.7cm, 금제사리내호 5.9cm×2.6cm
금제사리봉영기 세로15.3×높이10.3cm
청동합1 높이5.9×너비3.4cm, 청동합2 높이7.3×너비4cm
청동합3 높이6.6×너비3.2cm, 청동합4 높이 8.3×너비4.6cm
청동합5 높이7.1×너비3.8cm, 청동합6 높이5.9×너비3.4cm
- 재질 : 금, 금동
- 조성연대 : 639년(무왕 40) 경
- 사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心柱石)의 사리공(舍利孔) 및 기단부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639년(무왕 40)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영기(金製舍利奉迎記)와 함께 금동사리외호(金銅舍利外壺), 금제사리내호(金製舍利內壺)를 비롯해 각종 구슬 및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 6점으로 구성되었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는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서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볼륨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음각되었다.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봉영기는 그동안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청동합 중 하나에 새겨진 백제 2품 ‘달솔 목근(達率目近)’이라는 명문을 통해 시주자의 신분이 최상층이고 그가 시주한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서 희귀성이 높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석탑 사리공에서 봉안 당시의 모습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 사료이자 기준이 된다. 제작 기술면에 있어서도 최고급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한 형태와 섬세한 표현을 구현하여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는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 이숙기 좌리공신교서(李淑琦 佐理功臣敎書)

- 지정명칭 : 이숙기 좌리공신교서(李淑琦 佐理功臣敎書)
- 소유자(관리자) : 연안이씨 정양공파 대종회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53
- 수량 : 1축
- 규격 : 세로 27.5cm, 전체 길이 138cm
- 판종 : 필사본(筆寫本)
- 형식 : 권자본(卷子本)
- 조성연대 : 1472년(성종 3년)
- 사유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는 연안군(延安君) 이숙기(李淑琦, 1429~1489)가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로를 인정받아 1471년(성종 2) 3월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으로 책봉된 이듬해인 1472년(성종 3) 6월에 왕실로부터 발급 받은 공신증서로, 2012. 10. 4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2호로 지정되었다.

이 교서는 성종 추대와 관련된 정치적 동향과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 자료이자, 1471년 3월의 공신 책봉 때 누락되었던 구치관(具致寬) 및 이영은(李永垠)의 성명이 각각 첨가되어 있어 이들이 각각 2등, 4등 공신으로 추가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관찬사서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

아울러 발급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5세기 후반 공신교서의 형태적 특징, 서체와 제작방식 및 장정형태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粉靑沙器 象嵌 ‘景泰5年銘’ 李先齊 墓誌)

- 지정명칭 :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粉靑沙器 象嵌 ‘景泰5年銘’ 李先齊 墓誌)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 수량 : 1점
- 규격 : 높이 28.7cm, 너비 25.4cm
- 재질 : 도자(분청사기)
- 조성연대 : 1454년(단종 2)
- 사유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는 조선 세종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종2품 관직을 역임한 이선제(李先齊, 1390~1453)의 묘지(墓誌)로, 1998년 6월 김포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되었다가 2017년 9월 일본인 소장가의 기증으로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이다.

이 묘지는 조선 초기 민간의 상장례(喪葬禮)가 정비 보급되기 전 제작된 것으로서, 2개의 넓은 장방형태토판(長方形胎土板)과 2개의 좁은 태토판을 붙인 위패형(位牌形)의 독특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는 15세기 초·중반 사각형 도자판(陶瓷板)에 청화(靑華), 철화(鐵畵), 음각 등의 방법으로 글씨를 새기거나 위패형, 대반형(大盤形), 종형(鐘形)등 다양한 형태로 묘지를 제작한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15세기 후반부터 왕실에서는 백자 판형 지석이 제작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선제 묘지는 재질, 장식, 형태 등에서 조선 초기 묘지석 제작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된다.

이선제 묘지는 기축옥사(己丑獄死)에 연루되어 기록이 제대로 전하지 않은 그의 가계와 이력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조선 15세기경의 변화하는 상장 의례나 도자 기술, 서체 연구를 위한 중요한 편년작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 지정명칭 :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 수량 : 1축

- 규 격 : 전체 217×182cm, 화본 129×157.3cm
- 재 질 : 마본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580년(선조 13) 추정
- 사 유

‘지장시왕도’는 화기(畵記)에 의해 1580년(선조 13)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로 대시주자(大施主者) 한 명의 시주로 조성되었다. 주존(主尊)인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명계(冥界)를 다스리며 망자(亡者)의 생전의 죄업을 판단하는 열 명의 시왕, 판결과 형벌 집행을 보좌하는 권속을 한 화폭에 배치하였다.

화면은 다소 어두운 감이 있으나 색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체와 각종 의장물(儀仗物)의 묘사가 매우 세밀하면서도 뛰어난 묘사력을 갖추었다. 현존하는 조선 16세기 불화는 대부분 일본 등 국외에 소재하며 국내에 전해지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이 작품은 16세기 지장시왕도 중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명확한 화기 기록을 갖추고 있어 제작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인물의 배치와 구도, 지장보살을 비롯한 여러 권속의 도상과 화면의 양식적 특징에서 조선 중기 불교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첨부] 지정 예고 사진



<사진1.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



<사진2.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금제사리외호·내호)>



<사진2-1.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금제사리봉영기)>



<사진2-2.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청동합)>



<사진3. 이숙기 좌리공신교서(전반부)>



<사진3-1. 이숙기 좌리공신교서(후반부)>



<사진4.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정면·측면)>



<사진5. 지장시왕도>